

제4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부 의 장 선 거 소 건 발 표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9일(금) 14시23분

장 소 본회의장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지금부터 제4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후보 의원님들의 소견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순서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성명 가나다 순이 되겠으며 발표시간은 한 분당 15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대근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부의장 선거는 소견발표를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소견을 발표하는 그런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이 자리에 부의장 후보로 나와서 여러분께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전반기 의정을 끌어오신 김송식 의장님, 노영호 부의장님, 임종웅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 또한 송세현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세 위원회 간사 여러분, 전반기 2년 동안 정말로 우리 안산시의회를 끌어오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격한 그러한 안산시의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부족한 제가 감히 후반기 부의장으로

로 출마하게 된 것은 새로 선출된 장동호의원님을 보좌하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간 허리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경험도 단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의회를 통해서 배워온 저의 모든 실력을, 또 사회에서 가져온 저의 모든 경험을 안산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다음은 정권섭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권섭의원입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와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안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서 지방의

회가 새롭게 출발한지도 어느덧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일부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았으나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외교, 문화적으로 커다란 시련에 끊임없이 부딪쳐 왔으며 최근 우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았고 17대 총선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지방분권과 정치개혁에 대한 욕구로 정치적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 북한의 핵문제, 미군의 철수 및 기지이전, 참여정부의 새로운 정책, 경제 문제로 사회적 불안심리가 없지도 않았으나 지방자치 13년의 역사는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정을 지속적으로 운영케 하는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방자치의 발전은 사회를 튼튼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안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지방자치는 국가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써 이를 강화하고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2년 7월 개원한 제4대 지방의회의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난 10여년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제4대 지방의회도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책임성, 대표성을 제고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고 우리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제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주민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의회는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으며 아직도 지방의회에서는 조례 제정 및 개정의 발의가 주로 시 집행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장단 선거의 문제점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선거 운동으로 본연의 업무가 소홀히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의회의 유급제가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종전과 다른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재정적 사정에 부합하는 유급제의 검토,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만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발전될 것입니다.

본인 또한 선후배 동료 여러분보다 특별히 잘난 것은 없지만 의장을 보필하고 때로는 의장을 대행할 수 있는 부의장 직책에 서서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받으며 남은 2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다 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건대 지난 '91년 30여년만에 부활된 우리 지방의회는 그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민지방자치 의식을 높여 지방자

치발전에 굳건한 틀을 마련하였으나 아직까지 우리의 지방의회는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의회는 이 같은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여건 속에서도 한 차원 높은 성숙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일은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체제가 완성되어 지역간 선의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능력과 열정을 갖춘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공공심과 전문성을 갖춘 지방의회가 합심해서 땀흘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투철한 책임의식으로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자치단체라면 그 어디라도 꼴찌를 면할 수 없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오늘 지역의 일꾼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움을 안겨 줄 수도, 불명예를 안겨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 논리가 중앙의 논리에 우선하고 지방의 효율이 중앙의 비효율을 수정하고 지방의 다양성이 중앙의 획일성을 극복하며 지방의 창의성이 만개 하는 지방분권시대가 바야흐로 활짝 열리고 있는 가운데 분권하는 사회가 자율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고 자율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 창의력을 꽃피울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 혁신은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모든 노력을 의

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주민들의 뜻을 합하여 혁신을 실천하고 삶의 질을 높여감으로써 모처럼 찾아온 분권시대에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는 4대 후반기 의장단이 잘 구성되어 후반기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신중하고 면밀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상으로 소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